

2020 국별 진출전략

오만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PPP법·파산법 제정	4
나. 2020년 내 부가가치세 도입 예정	5
다. 외국인 고용 금지법 연장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6
가. 정치 환경	6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9
2. 시장 분석	12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2
나. 교역	12
다. 투자	14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7
가. 교역	17
나. 투자	19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0
III. 진출전략	22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2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3
3. 한-오만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7
4. 진출 시 유의사항	32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3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5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6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7
부 록	
對오만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38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오만 경제, 현상 유지 또는 소폭 상승 전망

- 2019년부터의 유가 안정 및 가스전 개발로 재정 적자 폭 점진적 감소 전망
 - 천연가스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은 2018년 2.4%에서 2019년 2.7% 성장 전망
 - 2020~2021년 국제 유가 상승세로 2019년 GDP 대비 재정적자 폭 6.8%에서 2023년 4.5%로 축소 전망
 - 정부의 2019년 예산 산정 유가는 배럴당 \$58, 브렌트 혼합유의 2019년 예상, 유가는 평균 배럴당 \$67.7로 적자 폭 소폭 축소 전망
- 경제 다각화를 위한 非석유 산업 지속적 추진
 - Vision 2040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물류·운송업, 관광업, 광업 및 어업 부문에서 오만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예상
 - 부가가치세 2020년 도입 예정으로 추가 세수 확대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3.86	3.99	4.16	4.41	4.56	4.60	4.71	4.83
명목 GDP	십억 달러	78.784	81.077	68.909	65.941	70.784	79.374	80.039	80.597
1인당 명목GDP	달러	21,920	21,810	18,240	16,450	17,130	19,300	18,080	18,560
실질성장률	%	4.4	2.8	4.7	5.0	-0.9	2.4	2.7	2.5
실업률	%	17.1	16.4	15.8	15.8	16.0	N/A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1.0	0.1	1.1	1.6	0.9	1.5	1.8
재정수지(GDP대비)	%	0.9	-3.4	-17.5	-20.9	-13.8	-6.6	-7.6	-8.2
총수출	백만 달러	56,429	53,566	35,683	27,545	32,887	41,730	45,403	44,657
(對韓 수출)	"	4,783	4,597	2,888	2,368	2,333	2,775	1,671	N/A
총수입	"	32,043	27,889	26,564	21,287	24,122	23,646	26,246	27,821
(對韓 수입)	"	1,007	1,172	939	616	641	675	326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4,386	25,678	9,118	6,257	8,765	18,083	19,156	16,836
경상수지	"	5,204	4,205	-10,939	-12,538	-10,980	-4,346	-5,420	-6,432
환율(연평균)	현지국/US\$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0.38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10	16.67	3.35	3.56	24.21	7.14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75	7.38	-21.69	22.62	29.14	63.35	N/A	N/A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EIU 19/09,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04, 오만통계청 Statistical Year Book 2019, 대한(對韓) 수출입(한국무역협회, 2019년 9월 기준), 실업률(Trading Economics 참고, 현지 통계확보 어려움)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해외 자본 유치 노력
- 2019년 도입된 특별소비세 및 2020년 도입 예정인 VAT 등으로 세수 확보 예정
- 일부 직종 비자 발급 제한법 재연장으로 한동안 외국인 수 감소 추세 전망

가. 외국자본 투자법 개정 및 PPP법·파산법 제정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외국인 자본 투자법 개정

- 상공부 및 무역투자청을 중심으로 해외자본투자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 전략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 외국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19년 7월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2020년 1월 2일 발효 예정
 - 기존 산업공단 및 특별무역구역에서 일부 가능했던 외국인 100% 소유(100% Foreign Ownership)조항 포함이 예상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예상

민관합작투자사업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제정

- PPP 사업 개시 및 입찰 절차, PPP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평가 판단 요건, PPP 수립조건, PPP 계약 관련 기본 요소 및 조건, 관리, 감독,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 규정 등을 적시
 - 민간의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 부문 유도와 더불어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규제 틀 마련,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함
 - 관보 게재로부터 1년 후(2020년 하반기) 발효 예상
 - 관련 시행령 및 세칙은 주무 부처인 상공부에서 발표 예정

파산법 제정

- 기업인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틀 제공 목적으로 도입
 - 오만 내 외국기업 지사 및 대행업체의 파산 관리 및 어려움에 처한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
 - 투자와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예방단계 요건 설정, 기업 구조 조정 지원
 - 채무자-채권자의 권리, 공익(Public interest)등에 의거 파산 절차 진행을 골자로 함

나. 2020년 내 부가가치세 도입 예정

2020년 부가가치세(VAT)도입 예정

- 당초 2018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19년으로 도입 시기 지연 이후 2020년 도입 적용 예정
 - GCC 회원국은 모두 VAT 도입 또는 도입 예정으로 사우디, UAE, 바레인의 경우 이미 도입했으며 오만의 경우 2020년 도입 유력
 - OECD 평균 VAT 세율 19%보다 낮은 5%가 적용될 예정
 - 2019년 9월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GCC 역외 수출제품에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
 - 교육, 의료, 부동산, 교통 관련 분야 미적용 전망
 - 일부 회계 법인에서 오만 정부 및 기업들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추가 세수 확보 및 정치적 이유 등으로 2020년 도입 가능성 많음
 - 기도입한 UAE, 사우디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세 조항을 발표하고 있어 2020년 도입 이후에도 세부 품목별 적용 세율 및 환급 등의 조항이 잇따를 전망
 - 오만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사는 2018년부터 VAT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와 UAE의 케이스를 참고해 오만 VAT 도입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
 - 기존 고객사의 경우 2020년 초 이후까지 지속 예상되는 계약에는 관련 VAT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 시 VAT 지불 책임 귀속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를 확인 필요
 - EIU 추정 추가 세수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 시 국책 프로젝트 발주 가속화 전망, IMF는 VAT 도입으로 1.7%의 GDP 상승 전망
- * 오만 정부는 VAT 도입 시 법인세와 같거나 더 많은 약 3억~4억 리알(\$7.8억~\$10.4억)의 추가 세수 확보 예상

다. 외국인 고용 금지법 연장

외국인 고용 금지 법안 2020년 1월까지 적용 전망

- 2018년 1월 최초 실행된 법안(6개월 한)으로 87개 전문직의 외국인 고용 금지를 통한 자국민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함
 - 2018년 7월 및 2019년 2월 추가 6개월씩 연장되었으며, 2019년 7월 6개월 재연장 결정
 - 법안 적용 기간 1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185만 명에서 175만 명으로 5% 감소세를 보였으며, 오만 총인구 대비 47%에서 42.5%로 감소
 - 오만인 민간부문 고용의 경우 동기간 8% 증가
 - 오만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높은 국외송금액이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효과와 동시에 건물 임대료 하락 등의 효과 공존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중립적 외교 유지로 주변국과의 분쟁 시 중재자 역할 지속 전망
- 탈 석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석유·가스 의존적 경제구조 지속 전망

가. 정치 환경

군주제 유지를 통한 국정 안정 유지

- 술탄 카부스 국왕(Sultan Qaboos bin Said Al Said, 1940년 11월 18일생, 1970년 7월 23일 즉위)이 Al Busaidi 왕조 제13대 국왕
 - － 국왕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입법·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음
 - － 또한, 최고 군사령관 및 총리, 국방장관, 외교장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를 겸직하고 있어 외교·국방·재무 등에도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총리(국왕 겸임), 부총리 2명, 장관 등으로 구성된 내각으로 국정 운영
 - 1977년 국왕 칙령으로 설치된 오만 평의회(the Council of Oman)는 국가 평의회(State Council, Majlis al-Dawla)와 자문평의회(Consultative Council, Majlis al-Shura)로 양원이 구성되어 있으나, 정당 활동은 불가
 - － 국가평의회(임기 4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는 상원에 해당하며 국왕이 임명하는 각 분야 전문가 85명으로 구성
 - － 자문평의회(임기 4년)는 양원제 의회의 하원에 해당하며 61개 Wilayat(우리나라의 시 또는 군에 해당)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85명 의원으로 구성
- * 2019년 10월 자문평의회 선거 실시

술탄 카부스 국왕의 국내외 정치 안정화 지속 전망 및 국민 신망 지속

-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수개월 간 무스카트·살랄라·소하르 등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국왕이 시위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개혁 정책을 발표하여 사태를 수습한 바 있음

- 2016년 공무원 및 노동자들의 불만 표출도 있었으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 적극 대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국내 정세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국왕의 건강 문제 및 후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 일부 후계 구도에 대한 우려 상존
 - 오만의 안정적 전통사회 구조 및 40년 이상의 통치기반 고려 시 비교적 안정적인 후계 절차 진행 예상
 - 다만, 향후 경제 상황 호전 여부,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 등이 변수로 작용 가능
- 오만은 외교현안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란 핵 협상, 카타르 사태, 예멘 분쟁 등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국 간 균형자적 중재 역할을 담당하며 주변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음

나. 경제 환경

석유·가스 의존형 경제 산업 구조

- 여타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 산업 의존도가 높음
 - 2019년 오만 예산안 기준 오만 정부 수입의 74%는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창출되며, 비석유 및 가스 부문은 법인세 등 세금 및 관련 수수료로 구성
- 2019년 1월 1일 경제 성장률 3% 이상 성장 목표로 2019년 예산안 승인, 사회 복지 정책과 경제 다각화에 초점을 맞춤
 - 2019년도 정부 예산책정 기준 유가는 일일 배럴당 58달러(2018년 50달러)로 책정
 - 오만 정부는 2019년도 총 수익을 약 101억 리알(약 262억 달러) 규모로 전망
 - 총지출의 경우 129억 리알(355억 달러)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125억 리알(325억 달러) 대비 3% 증액
 - * (경상) 약 62억 리알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부 부처 유지비는 45억 리알
 - * (투자) 약 59억 리알 규모로 정부 개발비용 12억 리알, 국영회사 개발 25억 리알, 석유 및 가스 생산비용 22억 리알 등으로 구성
 - * (기타) 약 8억 리알로 편성, 전년대 동일
 - *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한 지출, 총지출의 39% 차지
 - * EU는 2020년 GDP 성장 2.5% 전망

오만 국가 신용등급 하락

- S&P의 신용등급 하향조정(BB)에 이어 2018년 12월 피치는 기존 BBB-에서 BB+로 하향조정, 2019년 3월 무디스는 부정적 전망과 함께 오만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정크)등급인 Ba1로 하향조정
 - 오만은 걸프 지역 내 국제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로, 2014년부터 시작한 저유가로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불안정했던 2018 국제유가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실패한 것이 주원인

- 오만 정부는 2019년 새롭게 도입한 특별소비세, 2020년 도입 예정인 VAT 등의 새로운 非석유 부문 수입원 확보, 카잔(Khazzan) 가스전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지출 감소,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생산량 축소 정책 등으로 중·단기 적자 감소 예측
-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자본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외국인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적자폭 감소 전망

다. 산업 환경

에너지 개발 현황

- 2017년 기준 원유 매장량은 54억 배럴로 전 세계 총량의 약 0.3% 보유
 -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년 6월
 - 2017년 일 평균 생산량은 97만 1천 배럴로 세계 생산량의 1%
 - 같은 해 국내 석유 소비량은 일평균 약 18만 9천 배럴이며 2018년 1월~9월 생산된 원유 및 콘덴세이트 2억 6,550만 배럴 중 약 84%인 2억 2,260만 배럴 해외 수출 (자료 : 오만통계청)
- 2017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7천억 m³, 전 세계 총량의 약 0.3% 보유
 - 2017년 Khazzan 가스전 개발로 가스 채굴량은 2016년 대비 2.9% 증가(323억 m³),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0.9% 기록

에너지 개발 주요 기관

- 오만석유개발공사(Petroleum Development Oman, PDO)
 - PDO는 오만 국내의 석유·가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영기업이며, 석유회수증진법(Enhanced Oil Recovery, EOR)의 선두주자
 - EOR 공법 도입으로 인해 2018년 석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일 평균 6,500 배럴 기록
 - * EOR 공법은 2025년까지 PDO 석유 채굴의 2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지분구성 : 오만 정부 60%, 셸(Shell) 34%, 토탈(Total) 4%, 파텍스(Partex) 2%로 구성
- 오만가스공사(Oman Gas Company, OGC)
 - 오만 정부와의 합작투자자 2000년 설립, 정부를 대신하여 PDO가 생산한 가스 수송 담당
- 오만 석유 & 오만 정유 석유 그룹(Oman Oil and ORPIC Group, OOOG)
 - 2018년 12월 기존의 오만석유공사(Oman Oil Company)와 오만정유석유공사(Oman Oil Refineries and Petroleum Industries Company, ORPIC)가 통합되어 설립

- 오만 LNG

- 오만 정부 51%, Royal Dutch/Shell 30%, Total Elf Fina 5.54%, KOLNG 5%, Partex 2%, Mitsubishi 2.77%, Mitsui 2.77%, Itochu 0.92%의 지분 투자로 설립

재생에너지

- 오만은 2025년까지 총 발전전력의 최소 1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IPP로 2,500~3,000MW 발전을 목표
 - 오만 수전력조달청(OPWP)는 2018~2024년 7개년 전망 성명서에서 에너지 다각화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최우선 과제를 발표
- 오만 에너지 당국은 오만 주요 지역의 태양광 기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 향후 5년간 약 1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예정
 - 오만의 태양에너지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전력 수요뿐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2019년 8월 50MW 규모의 오만 첫 풍력발전소(도파르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첫 전력 발전을 시작했으며 도파르와 샤르키야 주에 추가 풍력 IPP 프로젝트 발주 예상

관광 산업

- 국가 관광 전략(2040 National Tourism Strategy)
 - 2016년 초 시작한 장기 전략으로 관광 분야 GDP 점유율을 2016년 2.6%에서 2040년 6% 이상 증가 목표
 - 동 전략 수립을 위해 약 519억 달러의 투자자금 유치가 필요하며 이 중 85~90%는 민간부문에서 조달 예정
 - 전략 기간에 약 8만 개의 새로운 숙박 객실 증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만 전역의 균일한 개발을 목표로 함
 - 2018년 호텔 숙박객은 2017년의 330만 명에서 7.5% 증가한 360만 명, 호텔 수익은 2017년 6억 1,340만 달러에서 10% 증가한 6억 7,440만 달러
 - 관광 산업 직접 경제 기여도는 2017년 총 GDP의 3.2%(22억 950만 달러)에서 2018년 6.0% 성장 예상

라. 정책·규제 환경

오만 자국민 의무채용 정책(Omanization, 오마나이제이션)

- 오만 자국민 의무채용 정책에 의거하여 산업 분야별로 고용 의무화 비율을 충족해야 함
 - 2019년 9월 오만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 수도 및 전기 부문 관리직의 경우 90~100% 자국민 의무채용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 민간부문 고위직 및 중간 관리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여 해당 일자리를 자국민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 지속 예정

주요 민간부문 오만 자국민 고용 의무화 비율

(단위 : %)

분야	비율
운송	60
물류 보관	60
통신	60
금융, 보험	45
부동산	45
산업	35
호텔 및 식당	30
도매 및 소매업	20
컨트랙터	15

(자료 : 오만 노동부)

- 오만 정부는 2019년 7월 외국인 87개 직종 고용 금지 법안을 추가 6개월 연장했으며 2020년 1월 재연장 가능성 높음
 - 오만 중앙은행(CBO)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부문 오만인 총 고용 비율은 2017년 11.7%에서 2018년 12.7%로 증가했으며, 2018년 민간부문 외국인 고용은 3.7% 감소
 - 해당 산업군은 IT, 회계·금융, 마케팅·세일즈, 행정·인사, 정보·미디어, 보험, 의료, 공항전문직, 엔지니어, 기술자 등임

특정 직업군 비자 발급 금지 정책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감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12월	2019년 8월	비고
건설업	581,225	514,384	11.5%감소(47,597)
제조업	210,401	200,302	4.8%감소(6,561)
농수산업	89,228	74,684	16.3%감소(14,544)
광업	18,035	17,025	5.6%감소(1,010)
상수공급, 하수 및 폐수 처리&관리	5,594	5,219	6.7%감소(375)
금융보험업	4,033	3,904	3.7%감소(129)
운송·보관업	69,477	68,061	3.2%감소(876)

자료 : 오만노동부

관광산업 설립 관련 수수료 및 세금 면제로 투자 활성화 촉진

- 2019년 6월 1일 무산담 주 관광산업 설립과 관련하여 신규 투자자들의 수수료 및 세금 면제 왕령 발효
 - 건설 기간 동안 관광산업에 필요한 건축자재, 도구,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외에 사업 실 운영 시작일로부터 10년간 4%의 관광세 및 5% 지방세 면제
 - 실 운영 시작일로부터 10년간 15%의 기업 소득세 면제

비전 2040(VISION 2040)

- 미래 예견과 진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비전 창조를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GCC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오만은 2019년 1월 비전 2040 국가 콘퍼런스를 개최, 탈석유 산업을 위한 경제 다각화 목표
 - 제9차 5개년 개발(2016~2020년)에 이어 비(非)석유 부문 산업 확대를 위해 관광, 물류, 제조업, 어업, 광업 등 5대 핵심 분야로 전환, 비(非)석유 부문 GDP 기여도를 6%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40년까지 민간부문 자국민 고용 비율을 42%까지 증가시키고 외국인투자를 GDP의 1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

2 시장 분석

- 중립적 외교로 인한 정치 안정화와 동시에 전략적 위치로 주변국 수출에 용이
- 비(非)석유 부문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 정책 유지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전략적 위치로 물류허브 역할

- 오만은 지리적으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의 교차지점에 있어 해상무역에 유리
 - 북쪽 무산담(Musandam)에서 남동쪽 아라비아해까지 약 3,165km에 이르는 해안선 보유
 - 사우디, UAE, 예멘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란·파키스탄·인도 등과 면해 있음. 유럽,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용이
 - GCC 내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철도·도로·항만 등 대형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 발주 전망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탈석유 경제 다각화 추진

- 오만 'Vision 2020'의 마지막 단계
 - 연평균 GDP 성장률 3% 달성, 비석유 GDP 기여도 4.3% 성장 등이 목표
 -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민영화 제도 도입 정책을 중점으로 실행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
 - 5개 주요 산업인 제조업, 교통 및 물류업, 관광, 수산업, 광업에 역점을 두어 경제 다변화 추진, 동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자국민 고용률 향상
 - 교육·보건·비즈니스 환경·공공서비스·통신·IT 등 부문에서 성공이 전망되며, 부문별 평균 성장률 예상치는 식품 공급 5.3%, 수산업 6.5%, 제조업 및 광업 각각 6%
 - 오만의 비석유 부문 수출은 2003년 이후 매년 30~40% 성장

나. 교역

수출

- 2018년 오만의 수출은 417억 달러, 이 중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65.3%
 - 2018년 오만의 주요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대상국 : ① 중국(83.1%) ② 인도(7.6%) ③ 일본(5.8%) ④ 한국(0.3%)

- 주요 수출품은 원유(54%, 200억 달러), 가스(12%, 45억 달러) 등임
- (참고 1) 2017년 오만의 수출은 329억 달러 기록
 - 2017년 오만의 주요 수출대상국 : ① 중국(115억 달러), ② 인도(22억 달러), ③ 한국(20억 달러)
 - 주요 수출품은 원유(45.8%, 151억 달러), 가스(9.21%, 30억 달러) 등임
- 2018년 오만의 비(非)석유 부문 수출은 144억 달러 기록
 - 2018년 비(非)석유 부문 주요 수출 상대국 : ① UAE(29억 달러) ② 카타르(17억 달러) ③ 사우디 (16억 달러)
 - 주요 수출품은 광물류(29억 달러) 비금속류(27억 달러) 등임

비(非)석유 부문 2018년 오만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천 달러, %)

구분	국가	금액	비율
1	UAE	2,901,958	21.1
2	카타르	1,794,918	13.1
3	사우디아라비아	1,661,443	12.1
4	인도	1,075,974	7.8
5	중국	774,107	5.6
6	미국	641,875	4.7
7	예멘	592,915	4.3
8	이란	423,555	3.1
9	쿠웨이트	361,615	2.6
10	파키스탄	357,014	2.6

주 : 환율 1달러=0.3845OMR 기준

자료 : 오만 통계청

- (참고 2) 2017년 오만의 비(非)석유 부문 수출은 137억 달러 기록
 - 2017년 비(非)석유 부문 주요 수출 상대국 : ① UAE(32억 달러) ② 카타르(13억 달러) ③ 사우디 (13억 달러)
 - 주요 수출품은 광물류(40억 달러), 화학제품(22억 달러) 등임

비(非)석유 부문 2017년 오만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천 달러, %)

구분	국가	금액	비율
1	UAE	3,266,099	23.8
2	카타르	1,375,808	10.0
3	사우디아라비아	1,330,200	9.7
4	인도	936,843	6.8
5	중국	796,247	5.8
6	이란	597,397	4.3

7	예멘	501,381	3.6
8	파키스탄	495,808	3.6
9	남아공	360,458	2.6
10	미국	351,893	2.6

주 : 환율 1달러=0.3845OMR 기준

자료 : 오만 통계청

수입

- 2018년 오만의 수입은 268억 달러 기록
 - 2018년 오만의 주요 수입대상국 : ① UAE(45.9%) ② 중국(5.9%) ③ 인도(4.4%) 한국(1.8%)은 11위를 기록.

2018년 오만의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달러, %)

구분	국가	금액	비율
1	UAE	11,822,619	45.88
2	중국	1,520,390	5.90
3	인도	1,130,738	4.39
4	사우디아라비아	910,884	3.53
5	카타르	826,751	3.21
6	미국	825,266	3.20
7	독일	626,013	2.43
8	브라질	602,000	2.34
9	이란	585,526	2.27
10	이탈리아	584,645	2.27
11	한국	452,660	1.76

주 : 환율 1달러=0.3845OMR 기준(고정환율)

자료 : 오만통계청

- (참고 1) 2017년 오만의 수입은 275억 달러 기록
 - 2018년 오만의 주요 수입대상국 : ① UAE(41.8%) ② 중국(6%) ③ 인도(5.3%) 한국(2.2%)은 10위를 기록

다. 투자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금액 꾸준히 증가

- 2013~2017 Foreign Investment Bulletin of Oman(오만통계청, 2019년 4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對)오만 외국인투자 잠정금액은 약 424억 5,200만 달러(누계)로 이는 2016년 401억 달러에서 5.9% 증가

- 산업별로는 석유·가스 159억 3,089만 달러, 금융 124억 8,334만 달러, 제조업 74억 8,548만 달러 순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이 오만의 최대 투자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2017년 영국의 대(對)오만 직접투자금액은 111억 1,613만 달러(잠정)로 총 직접투자금액의 46.5%
 - * 환율 \$1=0.3845 OMR 고정환율 적용
- (참고 1) 2016년 산업별 투자로는 석유·가스 136억 9,880만 달러, 금융 125억 4,120만 달러, 제조업 76억 6,920만 달러 순

투자형태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2016/2017년 증감액	
				2016년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17,917.8	21,012.0	23,930.0	3,094.1	2,918.1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2,593.0	2,338.9	2,062.7	(254.1)	(276.2)
파생금융상품투자	170.6	164.6	87.9	(6.0)	(76.7)
기타외국인투자	15,535.5	16,590.6	16,371.9	1,055.1	(218.7)
총계	36,216.9	40,106.1	42,452.5	3,889.2	2,346.4

주 : 환율 1달러=0.3845OMR 기준

자료 : 오만 통계청, 2013-2017 Foreign Investment Bulletin of Oman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6/2017년 증감액		2016/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석유 및 가스	10,725.6	13,698.8	15,931.1	2,973.2	2,232.2	16.3
금융	10,903.5	12,541.2	12,483.5	1,637.7	(57.7)	-0.46
제조	8,078.0	7,669.2	7,485.6	(408.8)	(183.6)	-2.4
부동산	1,546.2	1,759.7	1,805.2	213.5	45.5	2.6
물류	1,582.8	1,719.9	1,617.9	137.1	(102.0)	-5.9
무역	1,024.4	943.8	1,015.1	(80.6)	71.3	7.55
전기 및 수도	478.8	480.9	686.3	2.1	205.5	42.6
건설	680.4	568.8	635.9	(111.6)	67.1	11.8
호텔 및 요식	441.9	530.0	517.6	88.2	(12.5)	-12.4
기타	755.3	193.8	274.4	(561.5)	80.6	41.2
총계	36,216.9	40,106.1	42,452.5	3,889.2	2,346.4	5.9

주 : 환율 1달러=0.3845OMR 기준

자료 : 오만 통계청, 2013-2017 Foreign Investment Bulletin of Oman

국가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16/17 증감액		2016/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영국	6,687.6	9,098.6	11,116.3	2,410.9	2,017.7	22.2
UAE	2,200.3	2,565.4	2,618.5	365.1	53.1	2.1
미국	664.2	636.7	1,736.0	(27.6)	1,099.3	172.5
쿠웨이트	1,008.1	1,070.2	1,120.2	62.2	49.9	4.7
카타르	950.8	1,018.5	1,004.2	67.6	(14.3)	-1.4
바레인	811.7	904.6	731.3	92.8	(173.2)	-19.1
스위스	748.0	711.8	637.2	(36.2)	(74.6)	-10.5
인도	731.6	621.6	621.3	(110.0)	(0.3)	-0.1
네덜란드	660.1	646.3	610.1	(13.8)	(36.2)	-5.6
기타	3,455.4	3,738.4	3,735.0	283.0	(3.4)	-0.1
총계	17,917.8	21,012.0	23,930.0	3,094.1	2,918.1	13.9

주 : 환율 1달러=0.3845OMR 기준

자료 : 오만 통계청, 2013~2017 Foreign Investment Bulletin of Oman

○ 외국인 자본투자법 개정안 발효 시 투자금액 증가 전망

- 오만의 경우 특기할 만한 투자 제한제도가 없으며 자유로운 회수 자본금, 수익금 및 로열티 송금 등 자본 유출입과 태환, 외환거래 가능
- 2019년 7월 외국인 자본투자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며 2020년 초 적용 예정
- 이전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에서만 허용됐던 100% 외국인 자본 소유 규제 완화 전망

가. 교역



한-오만 교역 동향

- 2018년 양국 교역규모는 3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29억 7,500만 달러 대비 4억 7,500만 달러 증가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오만 수출은 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수입은 27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
 - 오만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 매년 약 40억 달러 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지속으로 2015년부터 수입규모가 대폭 감소하여 2018년도 우리나라 대(對)오만 무역 적자규모는 약 21억 달러에 이름
 - 2018년 기준 오만은 우리나라 수출대상국 중 62위이며, 전체 수출액 6,049억 달러 중 6억 7,500만 억 달러를 차지하며, 이는 0.11% 수준

한-오만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6월
수 출	1,171	939	616	641	675	281
수 입	4,596	2,888	2,367	2,333	2,775	1,443
무역수지	- 3,425	- 1,949	- 1,751	-1,692	-2,100	-1,163
교역규모	5,768	3,827	2,983	2,974	3,450	1,724

자료 : KOTIS



우리나라의 대(對)오만 품목별 수출 동향

- 2018년 우리나라의 대(對)오만 수출은 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 승용차는 2018년까지 4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열연강판과 석유화학 합성연료 등 주요 수출품목들은 수출 성장세 유지

우리나라의 대(對)오만 수출 주요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총계	641,218	4.2	674,885	5.3
1	석유화학 합성원료	60,034	184.3	77,474	29.0
2	열연강판	40,679	-11.7	75,538	85.7
3	승용차	123,194	-56.0	72,892	-40.8
4	무기류	18,808	74.1	66,993	256.2

5	휘발유	0	0.0	36,919	0.0
6	철강관	29,715	442.2	27,583	-7.2
7	밸브	24,997	378.8	24,423	-2.3
8	전선	25,986	202.5	17,216	-33.8
9	공기조절기	53,969	38.2	16,778	-68.9
10	화학기계	66,770	154.2	15,973	-76.1
11	제어용 케이블	4,345	89.1	15,513	257.0
12	축전지	8,844	-18.3	14,624	65.4
13	분석시험기 부품	9	-65.6	14,286	154,757.4
14	펌프	7,816	152.0	13,701	75.3
15	주단강	12,877	349.9	12,721	-1.2
16	건설 중장비	7,512	-45.6	12,009	59.9
17	기타 산업기계	1,414	-42.5	9,416	566.1
18	기타 석유화학 제품	11,615	93.6	9,332	-19.7
19	합성수지	10,242	3.9	9,261	-9.6
20	주철	2,726	174.5	9,191	237.1

자료 : KOTIS, MTI 4단위 기준

수입

- 2017년 대(對)오만 수입액은 2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며 2015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 지속
 - 이러한 추세는 2018년 5월까지 이어지다가 6월부터 1.3% 상승하기 시작, 2018년 대(對)오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9% 상승 기록

한국의 품목별 대(對)오만 수입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총계	2,333,294	-1.5	2,775,072	18.9
1	천연가스	1,926,786	20.8	2,506,323	30.1
2	기타 석유화학 제품	101,705	133.7	120,107	18.1
3	원유	242,104	-61.9	98,035	-59.5
4	기타 비금속광물	15,748	31.5	22,369	42.0
5	선박	0	0.0	12,582	0.0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6,457	-89.1	11,003	70.4
7	합금철	0	-100.0	2,285	0.0
8	수산물	0	0.0	640	0.0
9	기타 어류	240	130.4	545	127.5
10	갈치	254	178.6	350	37.5

자료 : KOTIS, MTI 4단위 기준

참고 : 2018년 오만의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달러, %)

연번	국가	금액	비율
1	UAE	11,807,935	45.9
2	중국	1,518,501	5.9
3	인도	1,129,334	4.4
4	카타르	909,753	3.5
5	사우디아라비아	825,724	3.2
6	미국	824,241	3.2
7	독일	625,235	2.4
8	브라질	601,252	2.3
9	이란	584,799	2.3
10	이탈리아	583,919	2.3
11	대한민국	452,098	1.8

자료 : 오만통계청 2019년 8월 Yearly Statistic Book

나. 투자

주요 한국기업 투자 현황

○ 한국가스공사

- 1996년 10월 오만 LNG의 지분 5%를 한국가스공사·현대·삼성·대우·SK에너지(구 유공)의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
- LNG 저장시설 건설·운영, LNG Trading 사업 등 오만 석유가스부와 LNG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 KOMAN Energy 설립(2008년 2월)

○ LG상사

- 1995년부터 LGI(30%)가 효성(10%)·금호(10%)와 컨소시엄을 구성, 오만 제8광구(Bukha 유전) 개발에 참여
- 2009년 2월 원유 생산이 시작된 8광구 West Bukha 유전에는 LGI가 단독으로 50% 지분 참여
- 2002년, 오만 폴리프로필렌(OPP)의 30% 지분을 투자(2011년 매도)
- 2005년, 아로마틱스 Oman(AOL)의 30% 지분을 투자(2011년 매도)
- 2012년 12월, OOC와 합작투자로 소하르에 PTA 및 PET 공장 설립 합의(LGI 지분 30%, OOC 지분 70% 예정)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20	2	109,308	41	27,676
2018	24	6	9,954	41	22,173
2019(7월)	2	1	522	3	777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2019년 8월 기준)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광업	3	0	98,600	12	17,014
	제조업	4	1	2,279	5	2,154
	건설업	13	1	8,429	24	8,508
	총계	20	2	109,308	41	27,676
2018	광업	0	0	0	20	13,929
	제조업	6	1	4,032	6	3,2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2,381	1	2,381
	건설업	11	4	2,976	12	2,588
	도매 및 소매업	2	0	410	0	0
	금융 및 보험업	1	0	9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146	2	46
	총계	24	6	9,954	41	22,173
2019 ~7월	제조업	2	1	522	2	7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0	0	1	30
	총계	2	1	522	3	777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2019년 8월 기준)

오만의 대(對)한국 투자

- 오만의 대(對)한국 지분 투자사례는 2004년 Oman Oil Company의 당진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GS EPS 지분 인수, GS EPS의 당진 LNG 발전소 2호기 건설에 3천만 달러 투자, 2009년 당진 LNG 발전소 3호기 건설을 위한 4억 5천만 달러 추가 양해각서 체결, 2011년 Oman Oil Company의 당진 LNG 발전소 4호기 건설을 위한 1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이 있음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 개요

- 2009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양국에서 교차 개최했고, 2016년 제5회 경협위 개최 (개최장소 : 한국) 이후 6차 회의가 오만 무스카트에서 개최 예정

- 2016년 제5차 위원회에서 한-오만 양측은 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보건, 관광 등 12개 분야 25개 협력의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제5차 한-오만 경제협력위의 주요 결과로 오만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투자자 전담데스크가 오만 내에 설치됨

- 오만 상공부 투자 서비스센터 내 투자자 전담 데스크(한국기업 포함)

제5차 한-오만 경협위 분야별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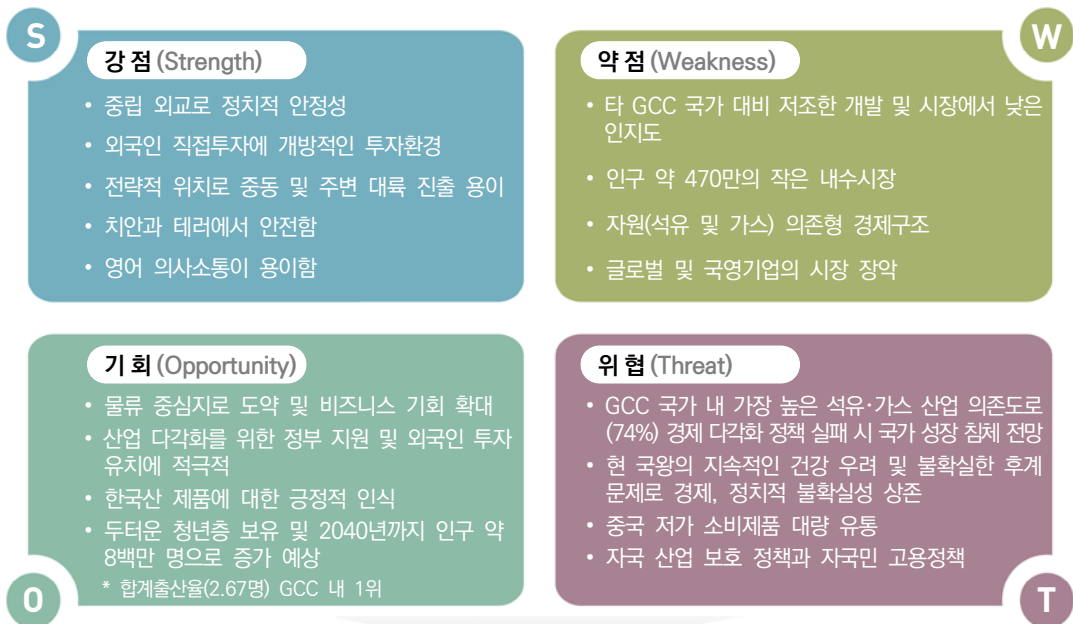
분 야	의 제	분 야	의 제
1. 교역 투자	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부문 교류 지원	7. 기술표준	① 표준분야 협력 및 MOU 체결
	② 오만 두쿰특별경제구역에 한국기업 진출	8.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정책 연수프로그램 운영
	③ 경제자유구역 조성·개발 경험 전수		② 한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 공유
	④ 오만 진출 한국기업 애로 해소 창구 설치	9. ICT, 과학기술	① ICT 분야 전문기관 간 협력
2. 에너지 자원	① 석유·가스 등 에너지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② 정보보안 전문기관 간 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및 ESS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 구성		③ 과학기술 분야 정부 간 협의 채널 구축
3. 철도 건설 도시 계획	①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④ 과학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
	② 도시계획 분야 정책 및 개발 경험 공유	10. 고등교육	① 학술 프로그램 및 대학생 교류 협력
4. 보건	① 오만 의료기관의 위탁운영에 한국 병원 참여		② 오만 개최 교육전시회(GHEDEX)에 한국대학 참여
	② 한국 의료진 파견사업 (Visiting Doctors Program)	11. 수공예	① 수공예 분야 협력
	③ 한국형 건강보험 제도 운영 노하우 공유	12. 관광	① 관광 분야 협력
5. 금융	① 금융협력 MOU 체결		
6. 해운 수산	① 해운협정 체결		
	② 수산·양식협력 MOU 체결		

Ⅲ. 진출전략

- 산업 다각화 정책에 부응하는 Post 프로젝트 시장 진출 다양화 전략
- 전략적 위치 이점을 활용한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진입전략
- 생활소비재, 방산,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등 오만 시장 진출 다변화 모색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오만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오만의 지리적 이점 활용, 중동 및 주변 대륙 시장 확대 • 한국의 인지도를 활용한 중저가 소비재 시장 공략 강화 •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 프로젝트 참여 및 협력 관계 구축	현지 진출 다각화 및 물류 네트워크 활용
ST 전략 (강점 활용)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활용, 우리의 제조역량과 시너지 창출	새로운 제조·수출기지로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 투자 • 자국민 역량 강화를 원하는 분야에 전략적 협력 추진	사회적 변화 기반 비즈니스 기회 포착
WT 전략 (위험 대응)	•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 중저가 브랜드의 시장 진출	고품질의 중저가 중소기업의 진출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산업 다각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오만 Vision 2020 계획에 이은 Vision 2040 도입으로, 산업 다각화 정책에 집중
- GCC 내 가장 높은 석유·가스 의존도 및 가장 낮은 매장량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석유 산업 성장 지속적 투자 및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비석유 산업 발전을 위한 오만 정부의 강한 의지
 - Vision 2040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물류·운송업, 관광업, 광업 및 어업 부문에서 오만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예상
 - * 비석유 산업 비중 확대 목표 제시 : '17년 기준 GDP 대비 61% → '30년 83.9% → '40년 91.6%
- 주요부문 발전전략 개요
 - (제조업) 두쿰 특별경제구역 및 주요 자유경제구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물류·운송업) 두쿰 특별경제구역, 무스카트 신공항 등을 중심으로 선진적 물류기지 및 가공·수출 교두보 추진 중
 - (관광업) 이미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숙박시설 등 증설 중
 - (광업·어업) 신규 광업법 제정, 광업 인프라 구축, 오만정부의 채굴 투자 및 어선 제조, 해산물 가공 및 수출, 양식업, 신선물류시스템 등 추진 예정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제조업 및 어업 분야 진출
 - 오만의 작은 내수시장 감안,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수출
 - * 두쿰 특구 : 경공업 임대료 2.6불/m²/연간, 법인세 30년 감면 등
비숙련 외국인노동자 급여 수준(월 300불 내외, 주거/식비 등 추가제공)
 - 오만의 자국 제품 사용 정책(ICV : In Country Value)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시장 진출 등 주요 산업 분야 현지 제조 고려 가능
 - 오만은 역사적으로 강한 어업 국가로 관련 분야 제조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유망품목 : 플랜트 기자재 가공·조립·수출, 중소 어선 제조, 양식기술 투자 등

2-2. 전략적 물류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오만은 중동 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향후 물류 산업 도약 의지
 - * 아라비아해로 해안선이 개방되어 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전략적 위치
 - * '14-'18년 세계은행 국제 물류 실적지수 : 오만 순위 상승 (59위 → 43위)
- 두쿰 특별경제구역을 중심으로 해상,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 중
 - *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특구(총면적 : 2,000km², 해안선 : 60Km)
- 오만 항공물류 확대 계획
 - * 수도인 무스카트 신공항 개장 연계 배후 물류단지 개발 예정 등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두쿰 특별경제구역 항 개요
 - 연간 최대 2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독, 400척 이상의 대형 어선의 주요 거점 전망
 - 아라비아 해의 새로운 상업용 항구로 부상하고 있는 두쿰 항은 현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항구 및 드라이독과 액체 화물 수용량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화물터미널, 브레이크벌브터미널을 포함하는 상업부두 건설을 계획 중
 - * 한 쌍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총 길이 1.6km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연간 두 터미널의 총처리량은 3.5백만 TEUs가 될 것으로 예상
 - * 2단계 개발을 통해 6.5km² 크기의 정박지(basin)와 36개의 정박지(berth)를 수용할 수 있는 13.5km 크기의 상업부두가 추가될 예정
- 오만 항공물류 확대 및 공항 연계 물류단지 개발 예정
 - 오만 전체 항공물류는 2030년까지 78만 톤 증가 계획
 - * Oman 항공 그룹, '국가 항공물류 전략'에서 발표
 - 무스카트 신공항 연계 선진 배후 물류단지 개발 계획 추진 중
 - * 무스카트 신공항 물류 규모 : 22,780s/m 규모, 연간 35만 톤 물류 처리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오만의 지리적 이점 활용, 중동의 새로운 거점 및 물류기지로 활용
 - 오만 내수시장 및 중동, 서남아시아, 동부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위치
 - * 두쿰 항을 중심으로 가공·물류·수출기지로 활용 가능
- 선진 물류 강점을 가진 우리 물류 기업의 진출 및 시스템 수출
 - * 향후 오만의 소비시장 확대 및 콜드체인 등의 선진 물류 진출 타진 가능

2-3. 국가 인프라 구축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오만은 국민의 기본인프라 충족을 위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
 - * 오만 정부는 보건, 교육, 전기, 수도, 사회보장 등을 최우선으로 예산편성
- 재생 가능한 담수 부족으로 담수화 시설, 수도관리, 폐수처리 등 지속적인 투자 예정
 - * 인구 증가 및 제조업 투자 등으로 물 수요 지속 증가, 향후 담수화 및 폐수관리 상당한 투자 필요
- 도로 및 철도 등의 중장기 구축 및 투자 예정
 - * 오만의 도로 비포장률(50.7%), 현재 오만 내 철도 비존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담수화 등 수자원 지속 개발 계획
 - 담수 매장량이 부족한 고온 건조한 기후로 가계 소비 대부분은 담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의 소비 증가는 오만 상수 생산 능력에 부담이 되고 있음
 - * 지속적인 담수화 사업에도 물 부족현상 발생, 2040년 오만은 물 부족 국가 10위 예상
 - 오만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담수화 용량 목표를 130만 m³로 설정
 - * 현재 총 11개의 담수화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담수화 프로젝트 발주 예정
- 오만 도로망 지속 투자 및 향후 철도 개설 추진 중
 - 도로는 오만의 주요 교통수단이며 대부분의 국내 화물 운송은 도로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오만 정부는 경제 다각화의 일환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철도 운송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The Oman National Railway, 총 길이 2,135km). 동 프로젝트는 GCC 철도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두쿰 항, 살랄라, 예멘 국경을 포함
 - * 오만 정부는 운송 인프라에 약 200억 달러 투자 결정, 도로망 부문에 전체 교통 프로젝트의 60% 이상 할당
 - * GCC는 지역 철도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GCC Railway Network 건설 제안함. 동 계획은 유가 하락에 따라 당초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지연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리기업은 오만에 담수화 프로젝트 기 진출하였고, 향후에도 주요 협력 대상 국가임
오만은 신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담수화 프로젝트 등 신기술의 담수화 등 신규 프로젝트 적극적 제안 필요
- 오만 북부 산악지대 다수로 우리기업의 도로기술 및 향후 대비 철도 및 고속철 분야 지속적인 관심 및 제안 필요

3 한-오만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플랜트 프로젝트 진출전략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전통 석유산업 연계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 * 두쿰 석유화학단지, 수전력 설비공사 등 100억 불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예상
- 오만 정부의 총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25년까지 최소 10%로 확대목표
 - *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기술 도입 관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두쿰 특별경제구역 대규모 종합개발 추진 중
 - 두쿰 특구 개발 과정에서 석유화학, 수전력, 철도 등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예정
 - *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제특별 구역(수도 무스카트 남쪽 550Km 해안 위치)
 - (발주 예상 프로젝트) △두쿰 내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80~90억 불), △수전력 설비공사, △전국 전력망 통합연결 프로젝트(약 10억 불), △국가 철도망 건설 공사 등 최소 100억 불 이상의 프로젝트 발주 예상
- 오만 정부 및 국영 에너지기업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추진
 - 천연가스 발전이 대부분인 오만에서 국가발전 비전 및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보유
 - 오만의 수전력조달청(OPWP)은 2018~2024년까지 총 2,650MW의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 기추진(650MW) 및 추진 예정(2,000MW)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오만 정부의 두쿰 특구 개발의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
 - 현재 정유공장을 설립 중인 우리나라 대기업 2곳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개발에 적극적 참여 필요
 - * 2020년 하반기 발주 예상인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다수 전력 관련 프로젝트 발주 예상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선도기술 제공 등
 - 오만 에너지 국영기업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하이브리드 기술 등 선도기술에 대한 수요 다대
 - 국영기업 프로젝트 발주 및 기자재 납품 등 선제 대응 필요

3-2. 방산 진출전략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오만 방위산업 우선순위 및 국가 예산 지출규모 2위 산업
 - * '19년 방위산업 예산 : 총 89.4억 불(약 10조 8,600억 원), 전체 예산 중 27% 차지
- 오만은 GCC 국가 중 세 번째 큰 규모의 군인력 보유, 군 장비는 낙후된 편임
 - * 자국 방산 제조기업이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동지역 정세 반영 및 지리적 여건
 - 정세가 불안한 예멘 및 호르무즈해협과 맞닿아 있으며, 사우디·UAE와의 내륙 국경이 길고, 해안선도 3,165Km에 달하는 등 내륙 및 해안 국방 중요성 대두
- 군 장비 현대화 및 첨단기술 도입 수요
 - GCC 국가 중 상대적으로 군 장비 낙후로 군 장비 현대화에 관심 다대
 - 향후 도입 예정인 방산 제품은 첨단기술을 보유 제품 중심
 - * 다만 오만 정부의 저유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중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 전망
 - 오만 정부의 제조업 강화, 자체기술 개발 등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도입하는 방산 제품과 관련된 기술 도입을 중요시
 - * 도입 제품 관련 일부 소모성 부품 등의 자국 생산 및 조립시설 설립 연계 추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오만 국방부 및 경찰청이 주요 방산 물자 조달처로 현지 파트너 등을 통해 조달 제품 정보 수집 필요
 - (국방부) 공공 입찰이나 개별기업 초청으로 경쟁입찰 제도 운영 중으로, 공급업체 등록은 의무이며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해외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참가할 경우 납품 가능성이 높음
 - * 공급업체 등록 경로 : <https://www.modsg.gov.om/en/Pages/e-Services.aspx>
 - (경찰청) Directorate of Supplies and Logistics(DGSL)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온라인 입찰이 지원되지 않으며, 경찰청 납품을 위해서는 경찰청 조달부서에 공식기업소개자료로 등록절 차를 마쳐야 하고, 경찰청의 경우도 의무는 아니지만, 현지 공급업체를 통할 경우 납품 기회가 높음
- 유망품목 : 탄약, 통신장비, 제트엔진 시동기, 드론, 드라이 의류, 텐트 등

3-3. 소비재 진출전략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주 소비계층인 청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하는 인구구조로 안정적인 소비시장
 - * 20~49세 인구 비율 : 약 62%, 오만 평균 출산율 : 2.9명(세계평균 2.47명)
- 한국에 대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 보유 및 한국제품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인식 확산
 - * 오만 청년층 K-POP 인지도 상승, 한국 화장품 등의 성분에 대한 인식 제고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 엔터테인먼트 관심 증가에 따른 관련 제품 인지도 상승
 - K-POP 스타들의 화장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바 해당 연예인뿐 아니라 스타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를 초청한 마케팅도 이루어지고 있음
- 스마트기기를 통한 한국 문화 및 상품 정보 확산
 - TV보다는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높은 10~30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기 크리에이터들과 상품 콜라보 영상 제작으로 특정 홍보 상품의 경우 매출 최대 118배 증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10~30대 현지 소비자에게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
 -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제품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전략을 수립
 - 일회성 단기 마케팅에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잠재 고객층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는 데 주력할 필요
- 콘텐츠 제작에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살려 현지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돕고 아이디어도 제공하여 현지 마케팅 업무를 지원
 - * The Face Shop이 현지 에이전시에게 단순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본사에서 오만 내 매장 운영을 직접 관여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됨
- 유망품목
 - (화장품) 자외선차단제품, 수딩젤, 마스크팩, 영양제품, 생활용품(샴푸, 비누) 등
 - (피부과 제품) 영양 앰플, 피부관리 제품, 피부관리 기구 등
 - (유아용품) 유아의류, 유아용품, 신생아 용품, 장난감 등

3-4. 보건·의료 진출전략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오만 보건복지부는 Health Vision 2050 정책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비 최대 1만 곳 이상의 의료 관련 기관 확장에 초점
 - * 2018년 기준 78개의 병원(공공 55곳, 민간 23곳) 및 6,837곳의 병상 보유(추정치)
- 2018년 오만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억 달러, 2018~2023 의료기기 시장 성장 규모는 9.8%로 2023년 1억 5,980만 달러로 성장 전망
 - *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
- 국민 의약품 지출액은 2018년 7억 4,400달러에서 5년간 연평균 6.2%씩 증가해 2023년엔 10억 달러 전망
 - * 오만 내 제약회사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오만 정부는 메디컬시티 추진 및 선진 병원 및 의료시설 유치 관심 다대
 - 수도인 무스카트 서쪽 60Km 지점 바르카 지역에 Medical City 프로젝트 계획
 - * 2015년 토지 확정 이후 진척이 거의 없으나 지속적으로 의료정책에서 거론되고 있음
 - * 1차 단계 규모 : 약 15억 불 규모
 - 특히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 도입에 관심이 많으며, 현지 합작 및 투자유치 관심
 - 프로젝트 추진 방식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선호
-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 관심 증가
 - 한국산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수요 증가
 - 치과 및 피부과 관련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시장수요 존재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병원 진출 및 의료관광 유치 추진
 - 우리 선진 병원 및 의료시설 등 진출 타진 가능
 - * 현지 의료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등의 요건 마련 중이며, 현지 의사면허 취득 등의 절차가 있어 철저한 현지시장 조사 필요
 - * 우리 병원의 선진 운영시스템 수출, 위탁 운영, 합작 등 다양한 형태 고려 필요
 - 의료관광의 경우 오만-한국 직항 부재로 수요에 비해 진출 장벽 존재
 - * 인근 UAE 등에 진출한 한국병원으로 오만 환자 유치 가능
- 현지 수요제품 조사 및 마케팅 강화 필요
 -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대비 현지 마케팅 저조,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 활성화 필요
 - 유망품목 : 초음파 장비, 치과 장비/재료, 피부과 앰플, 주사 바늘, 엑스레이 트레이 등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지연	부도수표 발행
■ 오만 내 지급 지연은 큰 문제 중 하나 -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 3개월 지급 지연 발생 중 -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거래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하청업체들도 임금 등을 비롯한 대금지불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오만 내 제조업체 H사의 경우 거래업체의 대금지불 연기로 인해 해외 거래업체 잔금지불 기한 지연 발생 ■ (대응전략) ☞ 무역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특히 첫 거래 시 보수적 접근 필요 ☞ 유가하락 이후 자금난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초 거래 시 진위 확인으로 피해 최소화 필요 ☞ 선적일과 대금 지급일 간 차이 최소화 또는 선금 및 잔금 비율의 조정, 대금 100% 지급 완료 후 선적확인 원본 바이어 전달 등의 협의 필요	■ 오만 내 거래 지급 대부분은 수표이용 - 수표 발행인의 계좌에 잔금 부족 시 수표 부도 발생 - 오만 내 무역회사 T사는 상대회사가 반복적인 거래로 신용을 쌓은 뒤 수표 지급으로 물품 수령 이후, 수표 출금 불가 및 거래처 연락 불가로 회사 폐쇄 위기 - 오만 내 부도수표 건수는 2017년 2,963건에서 2018년 3,054건으로 소폭 증가 ■ (대응전략) ☞ 오만 법에 따르면 수표가 발행되는 은행 계좌주는 상대방 출금까지 발행 가능금액을 유지해야 하며, 잔금 부족 발생 시 형사소송 가능 ☞ 해당 법률은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제공, 해당 기간 후 사기죄 해당 ☞ 사업 계약 체결 전 적절한 지불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대금결제액과 지불 가능 금액의 확인 필요
느린 업무 진행 속도	업체 신용도 문제
■ 오만 내 업무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린 편 - 정부 연관 사업 진행 속도는 민간 사업 진행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느린 편으로 인내심 필요 - 검사 및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예상시간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잦으며 여유 있는 시간 안배 필요 - RfP, RfQ 발행 뒤에도 사업 잠정 중지 후 재개되는 경우 발생 ■ (대응전략) ☞ 오만 정부 관련 비즈니스 진행 시 장기적 접근 필요	■ 오만 내 설립된 기업 신용평가기관이나 사무소는 없음 - 오만 기업과 첫 거래 전 업체 존재 유무, 해당 직원 근무 유무 등 충분한 사전 조사 필요 ■ (대응전략) ☞ 거래 진행 전 직접 접촉을 통해 기존 거래 이력 확인이 필요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오만 상공부에서 회사 상업번호 조회 등으로 회사 영업 유무 및 해당 담당자와 연락처 일치 등의 확인 필요 ☞ 이메일 교신 외에도 직접 현지 번호로 전화통화 필요 ☞ 미수 사례 발생 시 현지 대리인(변호사) 선임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61112000	수입관세율(%)	5
유아의류	수입액('17/US\$천)	18,055	대한수입액('17/US\$천)	54
	선정사유	출산율이 높은 오만 특성상 유아 및 아동복 시장의 높은 가능성 2018년 오만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성인 1인당 아동 5명의 구조		
	시장동향	천연염료 및 고품질, 향균 성분 등을 선호		
	경쟁동향	수 주입국 : UAE, 중국, 인도		
	진출방안	현지 의류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접근		
품목명 2	HS Code	95030090	수입관세율(%)	5
상업용 드론	수입액('17/US\$천)	120,052	대한수입액('17/US\$천)	6
	선정사유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전반적인 시설 관리/감독용으로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 증가 인력에 비해 저렴한 비용 및 인재사고 위험 방지 목적으로 선호 2019년 8월 Oman Gas Company는 가스라인 점검을 위해 드론 기반 항공 검사 채택, 시간 단축 및 CO2 절감 등의 환경 보호 효과		
	시장동향	주 수입국 : UAE, 중국 오만 내에는 드론 생산 업체가 없음		
	경쟁동향	DJI[중국], XAMEN ATEX[프랑스], Intel Faclon8[미국], Topcon[미국, 네덜란드]		
	진출방안	전자제품 전문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수출		
품목명 3	HS Code	90271000	수입관세율(%)	5
가스탐지기	수입액('17/US\$천)	12,413,351	대한수입액('17/US\$천)	0
	선정사유	석유·가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보호장비(PPE)로 꾸준한 수요 황화수소, 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탐지에 사용		
	시장동향	한국 제품은 높은 기술력으로 정밀함을 자랑 수출 시 필수 인증은 하기와 같음 - Appareils destinés à être utilisés en Atmospheres Explosives(ATEX) -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System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IECEx) - CE mark or European Union Certified equipment (CE)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ISO)		
	경쟁동향	Honeywell Analytics U.K.[영국], Drager[독일], Rkl Instruments USA [미국], Measurement Instruments[미국]		
	진출방안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판도 개척		

품목명 4	HS Code	48142000	수입관세율(%)	5
	수입액('17/US\$천)	1,411	대한수입액('17/US\$천)	29
벽지	선정사유	오만 내 모든 벽지는 수입품 한국 회사 OMEGA 제품이 오만 내 최대 인기를 얻고 있음 수입을 위한 인증제도 불필요		
	시장동향	오만 내 벽지 생산 업체 부재 오만의 대형 페인트 제조사로 인한 대규모 투자 기대 프린트 부직포형 벽지를 선호		
	경쟁동향	Zhejiang Wall Life[중국], Choice Premier[태국], Violet[터키], Emboss [이탈리아], Gemanco[이탈리아]		
	진출방안	· 오만 현지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판도 개척 · 대규모 관광, 숙박 프로젝트와 연관된 EPC 계약수주업체와 접촉해 수출 판도 개척 · 오만 및 중동지역 내 건자재 인테리어 전문 유통망 업체 등과의 협업 등 고려 필요		
품목명 5	HS Code	39251000	수입관세율(%)	5
	수입액('17/US\$천)	8,127	대한수입액('17/US\$천)	1,482
GRP 탱크	선정사유	산업 다각화를 위한 호텔 산업, 상업 빌딩, 쇼핑몰 등의 대형 건물에서 각 건물 당 최소 십여 개의 수요 예상		
	시장동향	오만 내 Panel Tank 제조사가 없기 때문에 GRP 계열 탱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Amiantit, Al Hosni 등의 회사는 원통형 유리섬유 탱크와 rote molded 플라스틱 물탱크 생산 중 수출을 위해 WRA [영국]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오만 보건복지부와 Diwan의 승인이 필수임		
	경쟁동향	· Pipeco[말레이시아], Bridgestone[일본]		
	진출방안	· 입찰/EPC회사에게 상품을 선보이거나 현지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 판로 개척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e-Learning	선정사유	- 가처분소득 증가와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가 산업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동향	- 중동 온라인 교육 시장은 9.8%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자료 : the Bharat Book Bureau report) - 오만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80% 이상이 이러닝을 접함
	경쟁동향	- 중동 전역에 걸친 ASTUTIS, 이러닝 제작업체인 TradeMax, 이외에도 Edraak, Rwaq, Edlal 등이 있음
	진출방안	IT, 교육 솔루션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오만 시장 진출
품목명 2		
의료	선정사유	- 의료도시 계획 등 국가 단위 프로젝트 추진으로 의료장비 수요 확대 - 소득향상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늘어나는 인구와 기대수명으로 향후 의료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병원 대부분이 외부 의료 진찰(external medical consultation)을 필요로 함
	시장동향	- 오만 내 총 49개 병원이 있으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뉨. 2016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의사 수는 8,622명으로 인구 10,000명당 19.5명 - 오만 시민들은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나 높지 아 유럽 및 아시아 시장 선호
	경쟁동향	- 인도, 태국, 독일이 오만 의료 관광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의료기기 수입은 주로 UAE, 독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진출방안	-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 기관 등 좋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시장 진입 전에 오만의 관련 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사전 조사 필요함
품목명 3		
물류	선정사유	- 중립 외교로 다수의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 - 오만은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에 접해 있는 국가로서 GCC는 물론 인접 국가로의 기항지로서 우위에 위치
	시장동향	- 오만 정부는 세계 물류 10대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SOLS 2040' 계획을 발표했고 계획의 바탕이 될 항구, 도로, 철도 건설에 힘쓰고 있음 - 물류시장 규모는 2013년 78억 7천만 달러 대비 2016년 120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전체 GDP의 4.9% 차지 - 오만 물류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2015~2020년 7%(자료 : Ithraa)
	경쟁동향	- GAC(쿠웨이트), DB Schenker(독일),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이탈리아), Maersk(덴마크)
	진출방안	- 현지 물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 진출방안 모색 - 보관시설 확충, 효율적 운영시스템,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사안에 대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진출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한국 소비재·화장품 오만 샘플 상담회

- 사업명 : (국) 한국 소비재·화장품 오만 샘플 상담회
(영) Korean Consumer Goods&Cosmetics Sample Meetup
- 타깃 고객군 : 소비재 및 화장품 수출희망 국내기업
 - 주요 제품군 : 화장품, 유아용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 일시/장소 : 2020.2.26(수)/무스카트 시내 호텔 등(일정변경가능)
- 규모 : 국내업 15개사 내외 제품참여/오만 바이어 20개사 내외
- 샘플 상담회 주요 내용
 - 샘플 전시, 대리 상담, 메이크업 시연회 등
 - 바이어 오찬 행사 : 한식 케이터링, K-pop 동영상 상영 등

중기중앙회 오만-아프리카 시장개척단

- 일시/장소 : 2020년 3월 중순/무스카트
- 규모 : 국내기업 10개사 내외/오만 바이어 30개사 내외
- 주요 내용
 - 타깃 품목 : 플랜트 부품, 소비재, 화장품, 유아용품, 의료기기 등

2020 울산 중동 종합 무역사절단

- 일시/장소 : 2020년 9월 중순/무스카트
- 참여기업 및 기관
 - (기업) 국내기업 종합품목 10개사 내외
 - (기관) 울산시, 울산경제진흥원
- 사업내용 : 울산시 종합품목 무역 및 협력 사절단

2020 화성상공회의소 플랜트 기자재 시장개척단

- 일시/장소 : 2020년 10월 중순/무스카트
- 참여기업 및 기관
 - (기업) 국내기업 플랜트 기자재 10개사 내외
 - (기관) 화성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 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0년 예산안 발표	2020년 1분기	-
2020년 외국 자본 투자법	2020.1.2	-
2020년 민간부문 및 방문객 의료보험 의무가입 도입	상반기	-
2020년 VAT 가이드라인 발표 및 도입	상반기	-

주요 국경일

주요 국경일	일시(유동적)	비고
무함마드 승천일(Israa Wal Miraaj)	2020.3.22	날짜 추후 확정
라마단 종료 휴일(Eid al Fitr)	2020.5.24 ~ 26	
오만 국왕 즉위일(Renaissance Day)	2020.7.23	1970.7.23 국왕즉위
이슬람 희생제 연휴(Eid Al Adha)	2020.7.31 ~ 8.3	날짜 추후 확정
이슬람 신년(Islamic New Year, Hijri)	2020.8.20	
무함마드 탄신일(Birthday of Prophet Muhammad)	2020.10.29	오만 국왕 탄생일
오만 국경일(National Day)	2020.11.18	

유망 전시회 캘린더 국가정보참고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terior Design Furnishing EXPO	2020.2.11 ~ 2.13	확정
Kitchen&Bathroom Show	2020.2.11 ~ 2.13	확정
Tile&Stone Show	2020.2.11 ~ 2.13	확정
Oman Petroleum&Energy Show	2020.3.9 ~ 3.11	확정
Oman Design&Build Week	2020.3.30 ~ 4.1	확정
Oman Energy&Water Conference&Exhibition	2020.4.13 ~ 4.15	확정
Agro Food Oman	2020.6.8 ~ 10	-
Oman Health Exhibition&Conference	2020.9.21 ~ 23	-
Oman Fire, Safety&Security EXPO	2020.10월경	-
Food And Hospitality Oman	2020.10월경	-
EduTraC Oman	2020.10월경	-
Infra Oman	2020.10월경	-
Electro Oman	2020.10월경	-

부록

對오만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오만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오만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오만의 잠재력

○ 중립 외교정책으로 인접국 및 외교 대상국과의 협력 중시

- * 카타르 단교사태에도 직접적 참여가 없었으며 신중한 입장 견지, 쿠웨이트 및 미국 등의 중재 노력 지지
- * 전통적으로 이란과도 활발한 양자 관계 유지 중, 양국 간 해저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 경제협력 중심으로 양국 관계 확대 중

○ 현 지도자 카부스 국왕은 선정으로 국민 신망 지속,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치안 및 사회 안정성 유지

-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여행경쟁력리포트는 오만의 치안 수준을 MENA 지역 1위, 세계 3위로 발표, 기업 진출 및 관광사업 성장 가능성
- *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오만 사업 시작 환경은 93.5점으로 세계 68위 수준

○ 높은 인구성장률

- * CIA가 발표한 2018년 오만의 인구대비 출산율은 천 명당 23.7명,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년 합계 출산율은 2.67명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 청장년층의 발달로 건설한 인구구조
- * (참고) 해당 합계 출산율은 GCC 1위, 2위 사우디(2.53명), 6위(UAE 1.75명)

○ 전략적 입지로 물류허브 역할

- *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에 면해 있어 유럽 및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용이
- * 두둑 항의 건설로 향후 물류 산업 부문 성장 가속화 전망

○ 오만화-미화 페그제 유지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

- * 2014년 중반 유가 하락으로 압력이 있었으나, 오만 중앙은행은 페그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한동안 페그제 유지 전망

주요국의 대(對)오만 경제협력 현황

- 오만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으로 주요국은 군사, 석유화학, 건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오만과의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의 대(對)오만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UAE	• 대(對)오만 교역 1위 국가(전체 수입의 46%, 비(非)석유 부문 수출의 21%, 2018년 기준) • 수출, 수입, 외국인투자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상대국이자 비(非)석유 부문 수출·수입 1위국 * 2018년 UAE 수입금액 약 120억 달러, 비(非)석유 부문 수출금액 29억 * 2017년 대(對)오만 투자규모는 약 26억 2천만 달러로 영국에 이어 2위 * (참고) 오만의 2017년 대(對)UAE 투자규모는 약 3억 6천만 달러 • 양자무역 금액은 최근 5년간 거래규모 평균 10% 성장 • 오만-UAE 합작 회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 2019년 1월 기준 약 2,800개사 * 주 사업은 제조업, 에너지, 수자원, 금융, 건설, 부동산, 무역 등
미국	• 비아랍 국가 최초의 FTA 협약 체결(2006년 1월 체결, 2009년 1월 발효)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 오만 국적인 없이 100% 지분 소유 가능(기존 LLC의 경우 외국인 지분 70% 제한) • 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기준 39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조절 • Glasspoint 사(社) FTA로 오만 내 등록 후 석유 회수증진법을 위한 Amal 지역 태양열 발전소 설립 (2011년 11월), 이후 지역 본부 오만 설립(2012년 2월) • 협약 체결 후 100개 이상의 미국회사 오만 내 설립, 37억 달러 무역규모(2018년)
중국	• 오만 원유 수입 최대국(원유 총수출량의 약 83%, 약 2,400억 배럴, 2018년 기준) • 오만-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MoU 체결(2018년) • 중국 6개 사(社) 컨소시엄 Oman Wanfang LLC는 두쿰 특별경제구역(SEZAD)에 107억 달러 투자 약속(2018년) * 해당 컨소시엄은 5~7년 내 두쿰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오만 산업단지의 최소 30% 이상 개발을 약속, 10개의 중국 회사들이 토지 임대 계약 체결, 총 30억 달러의 투자 • 중국-오만 산업단지에 35개의 프로젝트 계획 * 12개의 프로젝트는 콘크리트, 건축 자재, 유리, 메탄올 및 기타 화학제품 생산 등의 중공업 * 다른 12개의 프로젝트는 1GW 규모의 태양 발전 및 석유·가스용 배관 및 시추제품 생산 예정
영국	• 대(對)오만 FDI 1위 국가(전체 FDI의 46.5%, 2017년 기준) Shell 사(社) PDO의 34% 지분 소유, BP社 카잔 프로젝트의 60% 지분 보유(160억 달러 투자) • 군사부문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며 2014~2018년 동안 약 24억 달러 상당의 영국 무기 수입 * 2019년 합동훈련지역 설립으로 영국군 영구거주 예정 • 2018년 양자무역 금액은 14억 달러로 2016년 대비 90% 증가

한-오만, 수교 이래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지속적 발전

- 1974년 3월 28일 수교(1971년 우리나라 오만 승인)
-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 해적 퇴치를 위한 2008년 UN 안보리 결의 및 국회 파병 동의에 의거, 2009년 9월부터 청해부대가 군수 보급을 위해 오만 최남단 살랄라 港 또는 무스카트 港 기항
 - * 해상 안전 확보, 해적 퇴치 등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활동에도 적극적 참여로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상 및 오만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제고, 우리 방산 장비 홍보에 큰 도움
- 오만은 우리나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호적 입장, 국제기구 선거 등에서 우리 입후보 시 별다른 사유(GCC 국가 입후보 등)가 없는 한, 우리 입후보를 일방, 또는 상호 교환 지지
- 우리나라는 오만과 25년간(2000~2024년) LNG 도입 장기계약 체결에 힘입어, 오만은 우리의 제 3위 LNG 도입국*, 우리는 오만의 3대 교역국(중국/UAE/한국)이자 4대 수출시장**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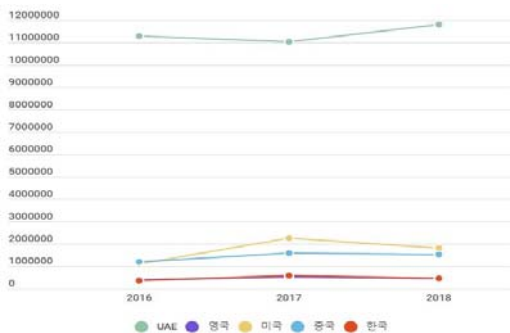
* 1위 카타르, 2위 호주

** 2018년 오만 수출액 기준, 1위 중국, 2위 인도, 3위 일본

- 기존의 에너지·건설 외 IT, 보건·의료, 수산양식, 환경, 직업훈련, 사법·법률 분야 등 협력 지평 지속 확대 중
 - 최근 양국 정부 간 정례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
- * 2009년 1차 한·오만 경제협력위 시작, 2019년 제6차 경제협력위원회(오만) 개최 예정

한국-오만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오만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단위 : 천 불)



- '18년 오만의 주요국 수입액은 UAE로부터 약 118억 불, 중국 15억 불, 인도 11억 불, 한국 4.5억 불 규모
- '17~'18년도 증가율로 비교 시, UAE 약 7%, 중국-4.6%, 인도 -19.3%, 한국 -22%로 UAE 제외 국가 전반적인 하락세
-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대(對)오만 수입액 22억 1천만 달러 (4위, 5.5%)로 2017년 20억 2천만 달러(7.7%, 3위)에서 소폭 상승. 대(對)오만 수출의 경우 2017년 총 수출금액 약 5억 8천만 달러(2.1%)에서 2018년 4억 5천만 달러(1.7%)로 하락
- * '17/'18년 UAE를 제외한 대(對)오만 주요 수출국의 수출액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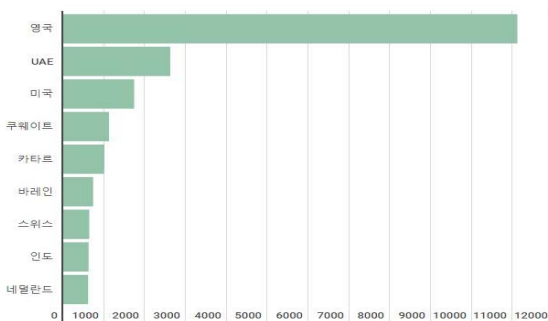
자료 : 오만경찰청

2. 대(對)오만 한중미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보일러 기계류	유기화합물	일반 차량	철강	전자기기
중국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철강 제품	광물성 연료	유기화합물
미국	항공기	일반 차량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무기류

- (수출연합도) 대(對)오만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3개 품목, 한국과 미국은 3개 품목이 겹침
자료 : Global Trade Atlas

3. 대(對)오만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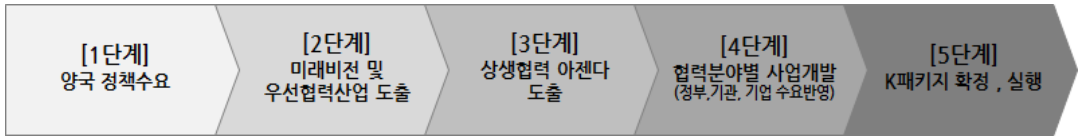


자료 : 오만통계청

- 영국-오만 양자무역 거래규모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경우 꾸준히 증가해 '17년 FDI는 '15년 대비 약 2배 증가(111억 1630만 달러)
- 전체 FDI 비중은 영국이 46.2%를 차지, GCC 국가가 22.9%를 차지하며 한국의 대(對)오만 직접투자는 미비 (2019년 상반기 \$77만)
- 전체 투자 비중은 석유 및 가스(37.5%)가 가장 높으며, 금융(29.4%), 제조업(17.6%), 부동산(4.2%), 물류(3.8%)의 순
- 오만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1위 UAE, 2위 사우디, 3위 인도, 4위 영국, 5위 쿠웨이트
- 투자 분야는 석유 및 가스(24.8%), 금융(11.9%), 부동산(11.5%), 제조업(4.1%) 순

나. 한-오만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보다 체계적이고,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개발 필요



* 오만의 경제개발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오만은 경제구조에서 석유가스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비석유부문 활성화, 제조업 유치, 물류·운송, 관광, 광업·수산업 등 산업 다각화 추진 → 『Oman 2040 비전 목표 제시』

오만의 협력 수요 산업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건설·인프라	방위산업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석유화학단지, 두쿰 인프라개발 등
보건·의료	소비재 유통	◆ 방위산업 - 한국산 방위산업 물자 도입 우호적
스마트 농수산업		◆ 국민 보건 수준 제고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투자유치 ◆ 제조역량 공유(투자유치-수출연계)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2025년 교역액 40억 달러 달성 목표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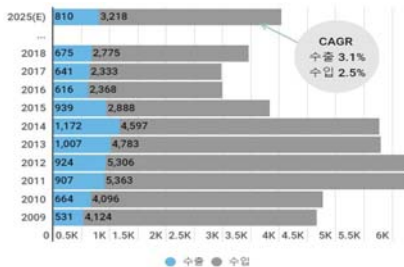
교역액 목표설정 근거

◆ 2025년 양국 교역 40억 달러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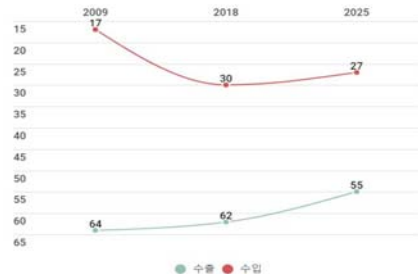
- 2018년 양자 교역 35억 달러 대비 5억 달러, 14% 증가치(2018년 대한(對韓) 교역규모 63위)

* (참고) 2015년부터 대오만 수출액 감소세, 2018년 상승 후 2019년 감소 폭 확대

대(對)오만 교역 추이 및 목표



대(對)오만 교역 순위 목표



주1 : 최근 10년 교역 추이(2009~2018년), 단위 USD 백만

주2 : 유가하락 전 수출 연평균성장률 8.5%, 유가하락 이후 평균 성장률 3.1%. 비(非)석유 부문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유가 안정에 힘입어 당분간 교역 상승세 전망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산업·정책 한류로 양국 협력·교류 수준 심화

- (정책 수요)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건설, 산업협력, 문화협력 등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 추진
 - 오만 정부는 'Oman Vision 2040' 달성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산업 및 사회 각 분야 한국과의 교류를 폭넓게 희망하고 있음
 - * 2016년 제5차 경험위에서 12개 분야 25개 협력의제 양국 간 합의
- (기업 수요) 대규모 건설·인프라 분야 수주 희망, 방산 분야 진출 확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진출, ICT 분야 진출, 교역 확대 수요
 - 오만의 시장규모가 작고, 우리기업이 전반적인 오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인지도 낮아 양국 간 교류 수준 낮은 편임
 - 향후 양국 간 경험위 및 대사관·무역관의 양국 교류 촉진으로 교류확대 추진 필요
 - 주요 애로사항은 전력 분야 IPP 형태 발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장기 운영에 따른 리스크 존재
 - 오만 정부의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악화로 PPP(Public Private Partneship) 형태의 투자유치로 우리기업의 진출 리스크 존재
- (협력 방안) 경험위 주요 의제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 상호 교류 가능성 타진 및 분야별 사절단 교류 추진
 - (플랜트 프로젝트) 두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수주 노력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전력 분야 프로젝트 참여 및 기자재 납품 등
 - (ICT) 정부 및 민간 ICT 프로젝트 참여 등
 - (수산업) 어선 제조,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등
 - (보건의료) 선진 병원운영 시스템 위탁 운영, 병원 진출, 의료관광 등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① 건설·인프라(정유시설, 석유화학 단지 등)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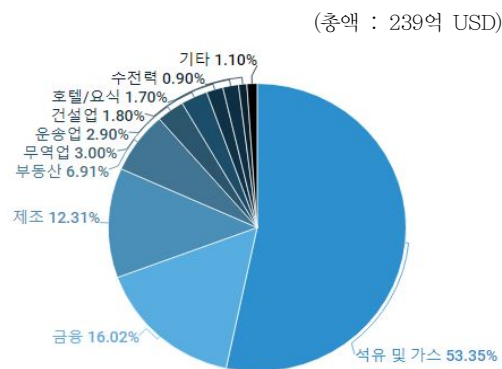
- (시장 수요) 오만은 일산 22만 배럴 정유 시설 두 곳과 LNG 터미널 세 곳, 광범위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석유 및 가스 인프라 보유
 - 오만 정부의 경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스 산업 오만 경제의 중추적 역할 → 2019년 초 석유 관련 그룹 합병과 함께 향후 10년간 해당 부문 280억 투자 약속

* 2018년 석유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37.1%, 전년 18.1%에서 고속성장(해당 부문 GDP 기여도는 2017년 29%에서 2018년 36%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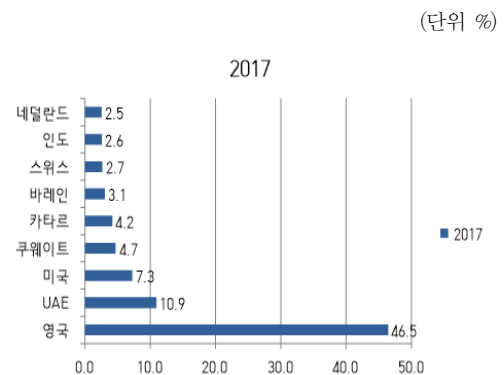
* 신설된 Oman Oil and Orpic Group은 2030년까지 오만 GDP 석유 부문 기여도 두 배 성장 목표

- (현지 역량) 오만 FDI 산업별 비중은 석유 및 가스 부문 53.3%, 국가별 비중은 영국이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017년 기준)
- 오만 정부는 올해 초 새로운 석유 블록을 민간 부문 개발에 제공, 경제 다각화를 위한 민간부문 독립 및 정부 차원의 민관파트너십(PPP)사업 장려로 향후 관련 사업 추가 발전 가능성

2017년 FDI 부문별 비중



2017년 FDI 국가별 비중



자료 : 오만통계청

- (한국 역량)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부문 진출전략 외에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도로망,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관련 투자진출 기반

한국기업 성공 사례

2015년 12월 GS 건설 Liwa 플라스틱 산업단지 PKG3(LNG 가스 시설 부문)공사 수주에 이어 2018년 8월 우리기업 (대우건설·삼성엔지니어링)이 두쿰 특구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수주(총 47.5억 달러)한 바 있고, 현재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GS 건설, LG상사, GS 에너지, 대림산업 등에서 신규 프로젝트 투자 및 수주 노력 경주 중

- 석유 분야 주요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 국제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방식이 효과적(두쿰 정유공장의 경우 스페인 TR, 영국 Petrofac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
- 주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문으로 나뉘어서 수주
 - 2019년 7월, 77구역 가스 개발을 위해 BP사와 이탈리아 ENI사 탐사 생산 분담 협정 체결, ENI사는 업스트림 부문 담당
 - 블록 8의 경우 DNO International과 LG Electronics가 50:50 지분으로 업스트림 담당

2 소비재 유통 분야 협력

(시장 수요)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소비 패턴 변화

- 주 소비계층인 청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하는 인구구조로 안정적인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출산율로 향후 풍부한 내수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49세 인구 비율 : 약 62%
 - 오만 평균 출산율은 세계평균 2.47명에 상회하는 2.9명임

오만 인구 추이

(단위 : 명)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취업인구	5,149,700	5,897,473	6,343,520	6,756,570

-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 활동폭이 넓어지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

연도별 오만 여성 취업인구

(단위 : 명)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취업인구	86,121	103,448	123,926	139,716	147,260

(한국 역량)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 보유/우수한 마케팅 전략 및 경험 보유

- 화장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성분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최근 소비자들은 피부에 순하다고 여기는 식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찾고 있음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특히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10~30대 소비자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노하우를 보유함
 - TV보다는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높은 10~30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기 크리에이터들과 상품 콜라보 영상 제작으로 홍보 상품 매출 최대 118배 증가
- 오만 내에서 청년층에게 K-PO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K-POP 스타들의 화장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바 해당 연예인뿐 아니라 스타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를 초청한 마케팅도 이루어지고 있음

(협력 전략) 현지 인플루언서와 우리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결합한 마케팅 활동 전개

-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제품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전략을 수립

- 일회용 단기 마케팅에 활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잠재고객층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는 데 주력
 - 단순히 스폰서와 원하는 수동적 방향의 콘텐츠 제작이 아닌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방식을 우리의 제작 노하우로 잘 담아낸 마케팅 콘텐츠 제작
- * 단, 인플루언서를 통한 효과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적당한 사례 체계를 만들어야 함

과제	AS-IS	TO-BE
	생산과 공급에만 치중한 수출	더욱 포괄적인 수출
접근 방식의 전환	과거 한국에서는 제품의 생산 및 공급에만 주력하고 현지에서는 에이전트가 유통, 마케팅 등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담당했던 구조	- 콘텐츠 제작에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살려 현지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돕고 아이디어도 제공하여 현지 마케팅 업무를 지원 'The Face Shop'이 현지 에이전시에게 단순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본사에서 오만 내 매장 운영을 직접 관여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됨

(주요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사례1) The Face Shop은 2012년 Al Hail 지역에 첫 매장을 오픈하며 오만 내 한국 화장품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현재 무스카트 Avenue Mall, Seeb City Centre, Qurum City Centre, Barka Grand Mall, Nizwa Mall, Salalah Gardens Mall, Sohar Safeer Mall 총 8개의 매장을 보유함. 기존 화장품 매장에 제품을 입점하는 형태가 아닌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한 것이 성공 요인
- (시사점) 에이전트 선정 후에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운영, 마케팅, 매장 및 손님 관리 등 전 영역에 걸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중요함
 - 멤버십 제도를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모아 고객이 기업이 만든 생태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
 - 오만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콘텐츠 제작
 - 새로운 제품을 체험하고 트렌드 및 제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기회 제공
 - 첨단 기기 사용을 통해 소비자의 피부 성향을 진단해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

[3] 스마트 농수산업 협력

(정책 수요)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관련 업종의 장비 수요 증가 예상

- 특히 농어업 분야는 정부 투자 우선순위로, 이는 식량안보 강화 정책과 경제 다각화와 맞물려 있음
 - 제8차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에 농어업 인프라에 49억 달러 투자
 - 오만 GCC 내에서 사우디와 함께 양식업에 가장 많은 투자 중

날짜	식량 안보 관련 주요 소식
2019년 10월 20일	○ 오만 최초의 우유 공장이 가동되어 시중에 유통됨 ○ 우유 공장을 운영하는 Mazoon Dairy는 국영기업인 OFIC의 자회사로 유제품 분야 자급자족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됨 ○ 하루에 60만 리터를 1단계 목표로 잡고 있으며 크림, 치즈, 라반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2019년 6월 4일	○ OFIC은 Nizwa은행과 협약을 통해 새로운 식품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180만 리알(4,680만 달러) 규모의 자금 확보에 성공함
2019년 5월 29일	○ '오만-걸프합작 투자(The Oman-Gulf joint investment)'는 경제특구인 두쿰(Duqm)에 정어리, 참치 통조림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발표함
2019년 3월 19일	○ A'Saffa Foods는 육류 생산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4,500만 리알(1억 1,1680만 달러)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함

(시장 수요) 건조한 기후와 물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스템 및 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현재 오만 내 경작 가능지는 총면적의 5.2%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여름 평균기온은 45℃ 농업업 관련 첨단기술이 매우 필요한 지역
 - 제한된 환경 안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관련 실험이 진행 중
- 매년 10.3%의 증가세를 보이는 식량 소비의 자급자족률을 높이기 위해 자국 내 제한된 경작지에서 식량 생산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80%는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장비가 필요함

(유망품목)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계장비, 관개장비, 담수화 장비

- 과거에 비해 경작지가 늘어났음에도 생산성이 저하된 원인이 염분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물이 원인인 됨
 - 오만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담수화 설비
-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화할 스마트팜 시스템이 유망

4 보건의료 협력

- (의료 기기) 2018년 오만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1억 달러, 2018~2023년 의료기기 시장 성장 규모는 9.8%로 2023년 1억 5,980만 달러로 성장 전망
 - 진단기기(29.9%), 소모품(23.4%), 환자 지원용품(10.1%), 정형·보철(7.6%), 치과기기(6.9%)순 (2019년 기준, Pitch)
 - 오만 의료기기 및 소모품은 수입에 의존

* 오만 내 관련 제품 주요 국내 생산 기업은 미-오만 합작회사 한 곳, 오만 남쪽 Raysut 자유무역지대 내 위치하여 아프리카 및 타 국가 수출이 용이. 대부분의 수출품목은 소모품(75%)으로 주요 수출국은 이라크(28.6%), 지부티(25.9%), GCC 국가들(26.2%). 2017년 총수출 금액은 1,030만 달러

- * 주요 의료기기 수입국으로는 UAE(35%), 미국(15%), 독일(9.3%), 중국(6.3%) 순이며, 한국은 19위인 0.7% (2017년 기준)
 -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을 국가 중 하나이자 가장 낮은 사망률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수 및 노인 인구수 꾸준히 증가 전망
 - * (참고) 2018년 기준 출산율 80.7:1000명, 사망률 11.7:1000명, 기대수명 남 75.8세 여 79.9세. 6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전체 오만 인구의 6.1%에서 2050년 13.1%로 증가 전망
 - 오만 보건복지부는 Health Vision 2050 정책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비 최대 1만 곳 이상의 의료 관련 기관 확장에 초점
 - * 2015년 오만 거주민들에게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의료기관 수를 235개로 증설, 2018년 기준 78개의 병원(공공 55곳, 민간 23곳) 및 6,837곳의 병상 보유(추정치)
 - (의료관광) 현지의 수요 및 성장 잠재력이 큰 편이나 직항의 부재가 진출 장벽
 - 인근 GCC 지역 한국 병원 진출 시 오만 연계 진출 방식 가능성
 - 인도의 경우 기존 의료비자 외 합법적 비자를 소지 일반 방문객의 경우에도 기존 질병 치료 허용(2019년 주오만 인도대사관 발표)
 - * 인도의 경우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 18% 보유. 2017년 10월 인도 Meittra병원 의료관광객의 72%가 오만인과 중동 의료관광객의 수치는 해마다 약 25~30%씩 증가 추세
 - (의약 제품) 오만 내 제약회사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 연구 개발 협약 가능성
 - * 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ies와 Oman Pharmaceutical Product Company 두 제약회사가 운영 중에 있으나 기초 의약품만 생산 중
 - * 대부분의 국제 제약회사는 오만 내 제약회사 운영 대신 중동지역 유통사무소 운영 중
 - * 2050년까지 오만 소비 의약품의 70%를 자국 생산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현지 시장규모로 진출을 꺼리는 실정. 주변국 수출 또는 연구기반 시설 설립으로 진출 가능성 고려
- 국민 의약품 지출액은 2018년 7억 4,400달러에서 5년간 연평균 6.2%씩 증가해 2023년엔 10억 달러 달성 전망. 이후 연평균 6.8%씩 증가해 2028년 의약 시장 규모는 14억 4천만에 이를 전망(Fitch)
 - * 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8년 \$154에서 2028년 \$249로 증가 전망
 - 2018년 기준 89%는 처방 약, 11%는 일반 의약품. 처방 약 비중은 2028년 92.7% 전망.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은 심장질환 계통
 - * 특허 의약품 49%, 제네릭 의약품 40%. 브랜드 제품 선호 추세이나 제네릭 의약품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 전망(2018년 3,000만 → 2023년 4,580만 → 2028년 7,110만)
 - * 인도-GCC FTA 체결 시 제네릭 의약품 가격 하락 압력 가중이 전망되며 제네릭 의약품 가격 하락 시 점유율 점증 가능성
- (협력 방안) 정부 차원 기술협력, 인허가 취득지원, 비즈니스 기회 확대
 - (G2G) 오만은 대부분의 의약품 및 의약기기 수입에 의존 → 인증 분야 기술협력 등 국가레벨 협력기반 조성(보건복지부 등 정부)
 - (B2G)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 지원 : 오만 내 판매/사용 목적의 의료기기는 오만 보건복지부(MoH) 산하의 의약품 관리국(DGPA&DC), 의료 소모품은 오만 상공부(MoCI)의 인허가 필요

- 등록 절차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전문 인증 대행 기관 설립 방법 등 도모(절차 간소화)
- FDA, EU, 일본후생노동성 인증 소지 기기의 경우 오만 내 인증 절차 완화 → 한국 식약처 인증 소지 시 해당 규정 완화 방법 도모
- (B2B) 사회 안정성 및 중동, 아프리카, 유럽 수출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현지 진출 전략 수립
 - * 2020년 외국인투자 개정안 도입 시 일부 산업 소유 지분 100% 조정 가능성 다대
 - * (예)오만 두쿰 특별무역지대 내 생산설비공장 건설 후 유럽, 아프리카 수출 → 해당 지역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하며, 두쿰 항 이용 시 전략적 수출 판로 개척이 용이

다. [B2G] 방위 산업 협력 강화

① 협력 수요

- (오만 방위산업 현황) 오만 정부는 국가 예산 편성 시 방위산업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오만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국가 예산 중 2번째 규모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며, 2019년 전체예산 중 27%를 차지하고 있음
 - * 2019년 방위산업 예산 : 총 89.4억 불(약 10조 8,600억 원), 전년 대비 0.3% 증가
 - * 최근 오만 정부 방위산업 예산 : 약 90억 불대에서 다소 감소추세
- (군 장비 현대화) 오만은 약 43,000명의 군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GCC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고, 오만 군인력은 가장 훈련이 잘된 군인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오만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GCC 국가 중 가장 군 장비가 낙후되었음

② 협력 방안

- (주요 국방 및 방위산업 기관 협업) 오만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오만 왕립경찰청을 중심으로 주요 방위산업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전략적 물자 조달, 기술보유 군수 제품, 소모품 등 수출 확대
 - * 오만 국방부 온라인 공급업체 등록 활성화
 - * 오만 경찰청 오프라인 등록 절차 활성화 등
- (절충교역을 통한 오만 경제개발 참여) 방위산업의 특성상 오만 현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방산 분야 자국 생산 및 조립, ICT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CSR 등의 패키지형 접근 필요

라. [국민]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인식 제고

① 인력교류 확대 방안

- ①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 외 K-Beauty, K-Pop 등 한류 콘텐츠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② 한국 문화 교류 동아리 활동 지원

③ 양국 교육기관(대학교, 시설 기관) MOU를 통한 학생 교류 및 한국어 강좌 확대(온라인, 오프라인)

한-오만 인력교류 사례

◆ **[사례1]** 2019년 주오만 대사관주최 한국문화주간 개최

- * 연간 Korea Week 행사 동안 개최되는 행사로 문화공연, 한국 영화 상영 및 태권도 시범 등으로 구성
→ 한국 문화를 오만에 소개하고 양 국민 간 우의를 다지는 기회로 발전

◆ **[사례2]** 2019년 주 오만대사관, 오만 한국동아리(OK Nuri)회장 및 임원진 감사패 전달

- 오만 내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외국인 증가(2016년 12월 창설 이후 현재 등록 회원 70여 명, 팔로워 700명, 각종 행사 참석자 약 200여 명으로 매해 회원 수 증가 추세. 오만, 인도, 요르단, UAE 등 다국적 회원 보유)
→ 매년 주 오만대사관의 후원으로 동아리 창립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K-Pop, 한국 관련 퀴즈,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문화 알림의 장으로 발전

◆ **[사례3]** 2019년 서울시 무용단 무스카트 페스티벌 특별 참가

- * 무스카트시의 초청으로 1월 11~13일간 전통 장구춤 공연 선보임
→ 무스카트 내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무스카트 페스티벌 개막식 공연으로 현지 언론들이 주요지면에 보도한 바 있으며 오만 내 한국 및 한국 전통문화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사례4]** 2019년 Middle East College 대학생 대상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양대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 참여

- * 오만 대학과 한양대가 주최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예술, 디자인, 미디어, 사회, 과학 및 수학, 한국어 및 역사 등 다양한 영역 외에도 관광지 탐방과 문화 여행 포함
→ 2013년부터 매년 상호 방문 문화연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오만 대학들과 양국 간 교육/연구 분야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Ⅲ. 향후 對오만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오만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세진	관장	무스카트무역관	+968-9934-1248	sejin-kim@kotra.or.kr
2	이경남	과장	본사 신남방팀	02-3460-7673	leekyungnam@kotra.or.kr

KOTRA자료 20-079

2020 국별 진출전략 **오만**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25-5(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